

(사회 : 김주민 청년, KSCF)

강문규 오재식 선배님은 한국 학생 기독교 운동의 선구자였으며 맨 앞에서 길을 여셨습니다. 이 두 분의 길을 따라가는 YMCA, KSCF 후배를 대표하여 김경민 사무총장님과 도방주 총무님께서 추모의 마음을 담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재식 선배님 추모의 말씀 : 도방주 총무, KSCF)

오재식 선배님의 10주기를 맞이하여 청년 오재식의 음성을 다시 듣고자 합니다. 1954년, 55년 학생회장이 되기 이전에 하계 대회를 맞이하면서 KSCF 창간호에 쓰신 글입니다.

가부간 사람이란 마음 붙일 것이 있어야 한다.

보대끼 숨을 돌이킬 만한 터무니가 있어야 하고 지친 다리를 담글 만한 개울썸은 있지 않으면

사람은 그 난심상태를 극복할만한 탄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우리들이 동란을 통해서 받은 타격은 물질적이고 피상적인 보다는 정신적이고 내적인 것이 더 큰 것 같다.

집씨들이 아니면서 그 심적인 상태는 분명히 방랑자들이며 물론 물려받은 유산이 이렇다 한 것이 없었든것만은 사실이나, 여하튼 영육 내면에서온 인경을 벗어나지 못한 것 만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중되는 타격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우리들은 그것이 불가항력의 것으로, 또는 우리를 능가하는 보다 큰 규칙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간주하기 쉬운 착각에 노상 놓인다.

우리는 이 극심한 현기증 속에서도 미력을 다 해서 우리의 전선을 고수해 왔다. 과거 수년간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힘써 갖어 온 우리의 하계대회가 그것이다.

아직 우리들 몸에서 불 냄새가 가시지 않고 포염에 쌓여 있는 고향에 쉽사리 불어 살아내지 못할 방랑자들인 것 같으면서도 역시 이 땅을 버리지 못했고 우리 마음을 방임해 두지 못했었다.

이것은 결코 조국에의 애착만에 끌리는 것은 아니며, 우리 생명을 더 연장하기 위한 낭만에 끌리는 것 만도 아니다.

여름마다 전국 각지에서 전우(오히려 그렇게 부르지)들이 뭉여서 일 주일을 같이 산다. 이것이 수양회라던지 정당대회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등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질서를 땅우에 세우고 땅우의 질서를 그리스도에게 귀의시켜야 하는 역군들의 보급기지인 것이다.

이것은 [주여, 당신의 질서는 지상의 질서를 초월해서 지배하십니까]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 터 인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엄명을 받들고 다시 내려 가야 하는 우리의 [시내 산]인 것이다.

그러므로 짧은 시간이지만은 늘 기다려지는 마음터이고 짧은 대면이지만은 형제의 열이 생활 속에 베이고 외로운 싸움 가운데서도 늘 옆에서 주는 참 뜨거운 벗의 얼굴로 임하여 주는 것이다.

1954년 서울 문리대학생 오재식.